

지역 소식 통

정읍시, 2026년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 추진

정읍시가 2026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산지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 저온수송차량 도입을 지원해 신선도 유지와 출하 조절,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사업장을 두고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김치가공업체,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며,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PCM 축냉식 포함 신규 구입·개조) 등이다. 저온저장고는 최대 660㎡, 저온선별장은 최대 660㎡, 저온수송차량은 최대 5.5톤 이하까지 지원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사회복지관, 수성주공 1단지 방문 욕구조사

정읍사회복지관(관장 정관일)이 주택관리공단 정읍 수성주거복지지원센터와 협력해 9월부터 수성주공 1단지 신규 입주민 8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욕구조사를 진행한다.

수성주공 1단지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약 4년간 신규 입주가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새롭게 입주가 시작됐다. 이에 복지관은 변화된 주거 환경에 발맞춰 입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와 복지 수요를 세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입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지역 자원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 농협 · 연구기관 손 잡았다

고창군 · 지역농협 · 식품산업연구원, 고추산업 체계적 육성 위해 협약 체결

고창군이 고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농협 및 연구기관과 손을 잡았다.

군은 지난 1일 오후 고창농협, 선운산농협, 대성농협, 해리농협, 흥덕농협 등 5개 지역농협과 고창식품산업연구원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창 고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창출과 가공·유통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고추 재배 농가 품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 △브랜드 가치 제고와 공동 마케팅 추진 △가공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확대 △농가·청년 창업자 교육과 기술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고창군은 행정적 지원과 정책 기반을, 지역 농협은 안정적인 원료



고창군이 고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농협 및 연구기관과 손을 잡았다

공급과 유통망 강화를, 연구원은 기술 개발과 가공산업화를 담당해 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낼 방침이다.

군은 또 고춧가루 가공산업의 현대화와 지역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26년 '특화식품(고춧가루) 6차 산업화사업'(20억 원) 공모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이는 고창군과 전북자치도가 전략적

으로 육성 중인 농생명산업지구(김치특화지구) 조성의 핵심 사업으로, 관련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추산업이 단순 원물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연구개발을 아우르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국 정읍지황 디저트 · 케이크 경연대회’ 연다

정읍시, 정읍지황의 새로운 활용 가치 발굴 · 창의적인 상품 개발 위해 마련

정읍시와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전북과학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 정읍지황 디저트 · 케이크 경연대회'가 오는 17일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정읍의 대표 특산품인 정읍지황의 새로운 활용 가치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상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연은 예선과 본선 두 단계로 진행되며, 서류 심사를 통과한 12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실력을 겨룬다. 경연 부문은 케이크 · 디저트 단일 부문으로, 참가팀은 녹지황 농축액을 활용

해 창의성과 상품성을 갖춘 작품 1종을 출품해야 한다. 본선 참가팀 전원에게 숙지황 농축액이 제공되며, 심사위원 평가와 전시를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작품을 준비해야 한다.

대회 현장에서는 심사와 함께 관람객을 위한 시식 행사도 마련된다. 수상팀은 별도의 시식용 제품을 준비해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정읍지황 디저트를 맛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500만원으로, 대상 150만원(1팀), 최우수상 100만원(1팀), 우수

상 70만원(1팀), 장려상 각 20만원(9팀) 등 본선 진출팀 전원에게 수상이 주어진다.

참가 자격은 전국 고등학생 이상으로, 2인 1조 이내 팀으로 응시할 수 있다. 접수는 10일 오후 6시까지 정읍지황 공식 홈페이지(www.정읍지황.com)의 공모문을 확인한 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읍지황은 전통 약재로서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원료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1회 고창군수배 전국 청소년 드론축구대회’ 개최

고창군이 13일 고창 꽃정원(고창읍 노동리 36)에서 제1회 고창군수배 전국 청소년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창군에서 처음 열리는 드론축구대회로, 아름다운 꽃정원을 배경으로 선수들과 방문객 모두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 · 스포츠 행사로 마련됐다.

대회는 국제드론축구연맹(FIFA)과 (사)대한드론축구협회(KDSA) 경기 규

정에 따라 진행되며, 전국 단위 청소년 드론축구팀(Class 20) 16개 팀이 출전한다.

참가팀들은 리그전과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청소년 선수들뿐만 아니라 고창 꽃정원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관람 기회를 제공해 재미를 더한다.

또한 같은 시기 개최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와 연계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드론축구대회가 청소년들에게 드론 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아름다운 꽃정원에서 자연과 함께 미래 스포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신석정 시인 서거 51주기 추모

2025 대한민국 문학인 어울림한마당, 부안 성황리 개최

신석정기념사업회(이사장 윤석정)는 한국 현대사의 큰 별이자 민족시인 신석정 선생 서거 51주기를 기리는 "2025 대한민국 문학인 어울림 한마당"이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부안군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신석정 시인의 작품세계를 다각도로 재해석하며 서거 51주기를 추모하는 기념 프로그램과, 부안의 자연 · 역사 · 문화유산을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해 전국 문학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문학 축제로 펼쳐졌다.

행사 첫날 부안 모항 하나루 가족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윤석정 신석정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효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권익현 부안군수,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김남곤 · 문효치 한국문인협회 고문 등 내빈과 전국 문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신석정 시인의 넷째 아들 신광만 씨와 유가족 1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 후 이어진 한국문학심포지엄과 석정시 컬로퀴엄에서는 신석정 시인의 작품세계와 지역문화의 의미를 되짚으며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적 가치를 논의했다. 이후에는 김태연 최성수, 적우 등이 무대에 오른 추모 음악제가 열려 풍성한 감동을 더했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부안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간직한 천년고찰 내소사와 절통의 맛을 이어온 품소만 것갈시장, 그리고 신석정 시인의 삶과 문학세계를 엿볼 수 있는 석정문학관을 차례로 방문하며, 지역 문화유산과 문학의 접점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026 스마트팜 패키지’ 공모 시작

정읍시가 스마트농업 전환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6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온실, ICT, 에너지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해 청년들이 곧바로 농업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예정)자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우수 청년농업인이다. 2026년 기준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이며, 정읍시 내 농지를 소유하거나 12년 이상 장기 임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착수에

필요한 자부담을 확보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기반조성(전기 · 배수 · 진입로 등), 온실 건축, 에너지시설(보온커튼 · 난방기), ICT 장비와 재배시설 구축이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 전문 컨설팅과 기술교육, 청년리더 교육 등 소프트웨어 지원도 병행된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최대 2000㎡이며, 지원 단가는 4억4000만원(㎡당 22만원)이다. 보조금은 70%까지 지원되고 자부담은 30%다.

사업 신청은 오는 9월 22일까지 해당 사업 대상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임산물체험단지 차향다원 운영시간 확대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 차향다원이 가을철을 맞아 2일부터 야간 연장 운영을 시작한다.

차향다원은 기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단,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차향다원은 지역 임산물로 만든 다양한 차와 음료, 커피를 판매하며 혈액 순환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족욕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이다. 대표 메뉴로는 복분자 요거트

스무디, 오감차 대추차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야간 운영은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과 문화광장 등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에 있어 야간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를 통해 관광 동선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내장산 대표 관광지로 차향다원의 위상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야간에도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운영 시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